

# 호남 민심잡기 나선 文 ‘통합의 첫걸음’

### 이희호 여사 예방...광주·전남 의원 당 요직에 배치

### 14일 5·18묘지·팽목항 방문...‘똥특별법’ 처리 ‘관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전남대회 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의원이 턱 밑까지 추격한 배경에는 호남 민심의 결집이 있었고 이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냉랭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는 점에서 문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예방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여사가 호남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 끌어안기로 해석되고 있다.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고문을 중심으로 하는 동교동계는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의 선거 캠프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공개 지지에 나선 바 있다.

이 여사는 이날 문 대표에게 “정말 책임이 중요하다”며 “말씀하신 대로 화해와 통합을 위해 앞으로 많이 수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표는 이에 “그런 문제로 여사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한 뒤 “최고위원들과 함께 인사부터 대화합 인사로 다 의논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추가 당직 인선에서 광주 강기정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전남의 김영록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김영록 의원을 대표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대변인으로 발탁한 것은 박지원 의원을 배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의 당권 확보 실패로 ‘호남 소외론’이 다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 대표는 지난 9일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르면 12일이나 13일 박 의원과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박 의원을 진정으로 배려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14일 광주 5·18묘지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방문을 통해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문 대표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이는 문화전당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예관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아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력을 발휘,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교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며 이에 따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잘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대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로 당선된 주승용(왼쪽) 의원과 문재인 대표 등 새 지도부가 11일 동교동을 예방, 이희호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 사무총장 양승조·정책위의장 강기정

### 새정치 주요 당직 임명...수석대변인에 김영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사무총장에 3선의 양승조(사진)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의 강기정 의원,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김영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명된 주요 당직은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당규의 개정으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을 거처도록 돼 있다.

충남 천안갑 지역구의 양 사무총장은 당내 유일한 충남 지역구 3선 의원으로 충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순학규 대선후보 경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당내에서 대표적인 ‘순학규계’로 꼽힌다.

광부 복합을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지난 2008년엔 정세균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범진노’계로 알려져 있다. 국회 법안과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여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한 경험이 있어 강성 의원으로 꼽히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김 수석대변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자치부와 전남도 등에서

행정가로 이력을 쌓은 뒤 정계에 입문해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나선 박지원 의원계로 꼽힌다. 순학규계·정세균계·박지원계를 두루 배제한 이번 인사는 지난 9일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과 유은혜 대변인 등 비(非) 진노인사의 임명에 이은 두 번째 탕평인사로 해석된다.

유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인사의 원칙은 대통합, 지역분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오늘까지는 원내 인사를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원내 인사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86그룹’ 정통 운동권...광주 북갑서 내리 3선

### 정책위의장 강기정 의원

정통 운동권 출신의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정치인으로 대표적 강경파로 꼽힌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과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 경호지원을 하던 경찰경호대 요원들과 버스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이 단적인 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해방 투쟁위) 위원장과 광주 지역 청년·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북갑에 출마해 민주당 김삼현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 내리 3선을 했다.

▲ 고흥(5) ▲ 광주 대동 ▲ 전남대 전기공학과 ▲ 전남대 삼민투위 위원장 ▲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 ▲ 17·18·19대 국회의원

# 투기 자금 출처·차남 재산 의혹 집중 추궁

### 이완구 인사청문회 마감

국회는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강남 타워팰리스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장인에서 부인으로, 다시 차남에게 증여된 분당 토지(공시지가 20억원)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에는 오전에는 이 후보자를 상대로, 오후에는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화 의원은 이 후보

자가 2002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인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 당시 입당 때가 돈을 받아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자금 출처를 감추려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중앙당에서 대선자금으로 5000만원씩 전 국회의원이 다 받았으며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받은 것”이라며 “다음이 그 사건은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캐나다의 동생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빌린 경우에 대해 “동생이 어제 전화를 해서 ‘내가 국내에 십수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강희철 충청항우회 명예회장이 분당 토지를 구매한 지 석 달 만에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되팔 점을 들어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에 사적으로 부인을 동반했다는 지적에는 “도에서 전일자 관행 등을 고려해 자체 결정했지 제가 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 행정가로 잔뼈 굵은 관료 출신 재선 의원

### 수석대변인 김영록 의원

전남의 지방 행정가로 잔뼈 굵은 관료 출신 재선 의원.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청,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를 거쳐 관선으로 전남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무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곧 바로 민주당에 입당, 재선에도 성공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소속 의원들과 원



만한 관계를 유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지냈다.

▲ 완도(60) ▲ 광주일 ▲ 건국대 행정학과 ▲ 행시 21회 ▲ 전남 강진·완도군수 ▲ 행정자치부 후보관리관 ▲ 전남도 행정부지사 ▲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18·19대 의원

##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학부

#### 정시 추가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등록조기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1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4
	실용음악학과	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없음),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① 원서접수 : 2015. 2. 9(월) ~ 23(월)  
②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석사	신학과(Th.M.)	○
		신학연구학과(M.A.T.)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석사	교육학과(M.Ed.)	○○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 신학대학원 편입

① 원서접수 : 2015. 2. 9(월) ~ 23(월)  
②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 605-1114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 초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범,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생,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명 810명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